

클래식 스타들 앨범 통해 대중과 만나다



바리톤 길병민(왼쪽부터), 피아니스트 임동혁·박재홍,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앨범 사진.

길병민, 예약 판매 2만5천장 기록 박재홍, 부조니 콩쿠르 연주곡 담아 임동혁, 슈베르트 앨범 전국 투어 정경화, 직접 지휘 '사계' LP 발매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대면공연이 줄어들면서 클래식 스타들이 앨범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두번째 쇼팽 앨범을 발매해 화제가 됐다.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앨범을 낸 지 5년 만에 발매한 앨범은 큰 인기를 끌었고, 앨범 발매를 기념해 진행된 리사이틀 또한 매진을 기록했다.

최근 바리톤 길병민이 선보인 앨범은 클래식 음반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피아니스트 박재홍·임동혁 등도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팬텀싱어3'가 배출한 스타 바리톤 길병민이 지난 17일 발매한 정통 클래식 앨범 '더 로드 오브 클래식스(The Road of Classics)'는 예약판매가 시작된 지난 1월 단 하루 만에 플래티넘(1만장 이상) 기록을 달성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이번 앨범은 발매 전날인 16일까지 2만5000여 장의 예약판매를 기록하며 멀티 플래티넘의 반열에 올랐다.

앨범에는 베버 '마탄의 사수',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비제 '카르멘',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라흐마니노프 '알레코' 등에 나오는 베이스 아리아와 함께 가곡인 슈베르트 '마왕', 토스티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으리', 칸초네인 비시오 '사랑한다 말해주오, 마리오' 등 12곡이 담겼다. 길병민은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했고 동아음악

콩쿠르, 국립 오페라단 콩쿠르 등 국내 콩쿠르를 비롯해 프랑스 툴루즈 국제 성악콩쿠르, 모나코 몬테카를로 국제 성악콩쿠르 등에서 우승하며 차세대 성악가로 주목받았다. 2019년 8월부터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의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선발돼 활동하던 중 2020년 JTBC 팬텀싱어3에 출연하며 그룹 '레테아모르'에 소속돼 3위에 올랐다.

지난 2020년에는 한국 가곡 음반 '꽃 때 A Time to Blossom'을 발매하고 동시에 기념 리사이틀을 진행했으며 현재 국립합창단,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 여러 클래식 단체들과 협연하고 있다.

지난해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박재홍은 오는 23일 '베토벤, 부조니, 바흐·부조니 피아노 작품집' 앨범을 공개한다. 이어 오는 3월2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박재홍은 10대 때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존재를 알린 것은 지난해 열린 제 63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통해서다. 당시 결승 무대에서 그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며 뛰어난 테크닉과 번뜩이는 음악성을 선보여 우승을 차지했다. 부조니 작품 최고 해석상과 실내악 최고 연주상 등 4개 특별상도 함께 받았다.

이번 앨범에는 부조니 콩쿠르에서 연주한 3곡이 담겼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도 가장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29번 '합머클라비어'를 비롯해 부조니의 '쇼팽 프렐류드에 의한 10개의 변주', 바흐·부조니의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가 있어'가 수록됐다.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아 슈베르트의 곡이 담긴 앨범을 공개하고 전국 투어

리사이틀을 연다. 오는 3월10일 발매하는 그의 6집 앨범에는 '가곡의 왕' 슈베르트의 후기 소나타가 담겼다.

앞서 임동혁은 총 5장의 앨범을 통해 쇼팽 발라드와 소나타, 슈베르트 전주곡,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쇼팽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등의 연주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앨범에는 슈베르트가 생애 마지막 해에 작곡한 세 곡의 피아노 소나타 중 '20번 A장조'와 '21번 B플랫장조'가 담겼으며 안산, 성남, 울산, 서울 등에서 열리는 리사이틀에서 연주할 예정이다.

1996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2위에 입상하면서 알려진 임동혁은 200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형인 피아니스트 임동민과 함께 한국인 최초로 공동 3위를 차지해 화제가 됐다.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는 지난해 11월 카미유 생상스 서거 100주기를 맞아 그의 음악으로만 구성된 앨범 'Saint-Saens'를 프랑스 레이블 나이브(Naive)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앨범은 그녀의 네번째 음반으로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하바네라',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로망스',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등이 수록됐으며 아파시오나토양상을 그리고 마티유 에르조그와 함께 레코딩 했다.

조진주는 지난 2006년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1위와 관중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이목을 끌었다. 이후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위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캐나다 맥길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밖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는 지난 1월 바 이올린을 들고, 직접 지휘하며 연주한 비발디 '사계'가 담긴 LP를 발표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다구·주기로 본 고려시대 차·술 문화

국립광주박물관, 25일 학술대회

고려시대 다구(茶具)와 주기(酒器)를 모티브로 당시 문화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다기(茶具)와 주기(酒器)를 통해 본 고려시대 차와 술 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오는 25일 오후 1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오는 3월 2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 '고려음高麗飲,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와 연계된 행사다.

1부에서는 전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라오바오시우 연구원이 중국 당대부터 원대까지의 다사(茶事)를 '전다법'(煎茶法 차를 구운 후 곱게 가루로 만들고 차 가루를 물에 넣어 끓인 후 찻잔에 따라

마시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덕성여대 이승란 교수는 '동아시아 급속제 다구의 특징과 의미'라는 주제로 차 도구 조합과 용도를 급속기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박동춘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은 고려시대 차 관련 문헌기록을 정리한다.

2부에서는 술 문화와 함께 주기(酒器)의 변화에 이해하는 시간이다.

고려대 김윤정 교수가 '고려시대 왕실 연례(宴禮) 문화와 청자 주기(酒器)'를, 독립학자 이희관 선생은 '다연(茶宴)인가, 주연(酒宴)인가-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궁락도(宮樂圖)'의 신해석'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통해 술 마시는 장면을 해석한다. 현장 참석 및 온라인 생중계 정보는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오는 3월 20일까지 열리고 있는 특별전 '고려음,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장면. <광주박물관 제공>

광주문화재단, 토요일문화학교 등 3개 사업 공모

다음달 7~11일 접수 25일 온라인 설명회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총 8억 원 규모의 3개 사업 공모 접수를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

3개 사업은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토요문화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이며 25일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먼저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은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획과 일반으로 공모한다. 지원 규모는 3억원. 기획은 광주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매년 평가를 바탕으로 3개 내외 단체에게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토요문화학교'는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 규모는 3억 4000만원이다. 일반은 연간 20차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20개 내외 단체를 선정하며 인큐베이션은 신규 운영단체를 대상으로 5개 내외 뽑는다.



2021년 진행했던 유아문화예술교육 장면.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은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일반유형' (3곳), 프로그램의 개발 및 현장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인큐베이션 유형' (2곳)과 함께 현장 유아교사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유아교사용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유형 (1곳)이 신설됐다.

지원규모는 1억7000만원. 문의 062-670-745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여성가족재단 '페미니즘대학 4기' 개강

지역의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여성가족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전남 페미니즘대학 4기'가 개강했다.

지난 2019년 시작해 총 340명이 참여한 전남페미니즘대학은 올해 여성주의 분야별로 체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2단계의 과정을 3단계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먼저 지난 22일 시작한 기본과정(3월29일까지)은 페미니즘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기본과정에서는 남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남성을 위한 페미니즘강좌도 진행하며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기념해 전남 지역 20대 남·여가 함께 하는

성평등 라운드테이블도 열릴 예정이다.

심화과정 1은 오는 4월19일부터 5월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페미니즘 사상사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다. 심화과정 2(6월7일~7월 5일)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젠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전문과정은 8월23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리며 '페미니즘 사상사Ⅱ 교차하는 관점들'을 주제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시간이다. 수강 문의는 전화(062-260-7331)로 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물류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